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성경 사무엘상 8:10-22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 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문들어 머리 들어라(은혜의 찬양 279장)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2 홀로 한 분 하나님께(찬송가 11장)

- 1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 2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 3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상 8:10-22

- 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말하여
-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 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 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 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 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 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께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본문 배경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늙어 사무엘의 아들 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임명되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정체성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8절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사무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을 싸워 주는 것이 아닌,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세운 인간 왕이 그들의 싸움을 싸울 것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싸워 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무엇을 요구하나요? (5절)

답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해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의 깊은 내적 동기는 세상과 같아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삼상 8:5b).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처럼 강한 왕을 세워 왕정 체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의 깊은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b). 기준점이 세상이 되자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2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1-18절)

답 인간 왕에게 구속(拘束)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 내용이 무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데려가 왕의 발을 갈고 추수하게 하며, 무기를 만들고 주방에서 일을 하게 하고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들이며 집안의 일손들에게 노역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재물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고, 노역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18절).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말씀 적용

- 1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모른 척하고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 2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막상 얻어 보니 별것 아니거나 도리어 피해를 보았던 적이 있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3-4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 24편 9-10절

♩ = 127

고보영



가정예배 기도문

우리 가정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